



컨설팅학과 이야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빅데이터 모임 초청강연 개최



비즈빅 8주차 모임에서는 경영컨설팅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신 정미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초청하여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와 역량’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3시에 진행된 해당 강연에서 정미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들려주셨는데요. 특히 강연자께서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은 학부생인 비즈빅 모임원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현업에서의 데이터 분석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앞으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간을 내어 강연해주신 정미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영컨설팅학과 원우 인터뷰 – 장동근, 권형은 원우 (경영컨설팅학과)

12월 7일 예정된 경영컨설팅학과 송년회를 준비 중이신 원우회 회장단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장동근 원우, 권형은 원우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 1기
장동근 원우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후기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장동근 입니다. 2000년 6월 LG이노텍에 경력으로 입사하여 현재 서울 마곡 본사 CSO부문/상품기획담당/디지털마케팅팀에서 전자부품 B2B 고객 대상 디지털마케팅 IT PI / System / Infra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금년이 첫 직장 입사 기준 직장생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수행한 여러가지 프로젝트/혁신 실무경험 전문화와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하여 2017년 2월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후 미루어 왔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1기 과정 동안 경영컨설팅학과를 다니시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아직 1기 중반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시점이지만 한마디로 "삶의 체질 개선 중"인 것 같고요, 회사업무와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집안일에 소홀한데 아내와 가족들 배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양대학교 일원으로 원우분들과 함께 학업하고 교정을 같이 걷다 보면 젊어지고 살아 있다고 느끼는 기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목표는 무엇인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5세가 정년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년이 연장이 되어 저희 회사는 만 60세가 정년인데요. 제 기준은 55세에 박사학위 취득과 회사졸업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제2의 직장을 다니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원우회장으로서 함께 학위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 원우회 회장인 이정현 회장님께서 그동안 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코로나로 단절된 상황에서도 어렵게 살리신 "원우회 번영의 불씨"를 주셨습니다. 교수님/선배/동료 원우분들과 그리고 22년 1학기/2학기 회장으로 선출된 권형은 회장님과 저와 함께 경영컨설팅학과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네이버 원우회 밴드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 총동문회 밴드 URL: <https://band.us/n/aca586dc3az1R>) 더불어 12월 7일(수)로 예정된 "송년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 2기
권형은 원우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깎이 대학원생입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생활 전선에서 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이제야 다시 꿈을 향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 박사 2기 과정 중이고요. 현재 안산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2. 어떻게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과를 찾다 보니 한양대 에리카 융합산업대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한창희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수님을 따라 경영컨설팅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또 안산시에서 기업지원 부서와 창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경영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업 지원 업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계기였을 것 같아요. 경영이라는 분야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려니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기가 무척 어렵기는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지금은 기업 관련 부서에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기업 지원 업무를 다시 하는 것이 저의 단기 목표입니다.

3. 1기 과정 동안 경영컨설팅학과를 다니시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느낀 점이요? 어렵다는 거죠. 정말 놀란 것은 같이 공부하는 학우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결석하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제도 너무 열심히 준비 해 오시고 발표도 잘 하셔서 매번 저의 과제나 발표가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비교하면 안되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교수님들도 저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점들이 저는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원우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경영학이라는 학문과는 좀 덜 친해지지 않았나 해요. 다른 사회과학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아주 추상적이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경영학 이론들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박사 논문이겠지요? 박사 논문을 잘 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해 나갈 생각이예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전통적 기업들의 사업다각화나 구조 고도화 또는 창업기업들의 사업화 성공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쓰고 싶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아무진 꿈을 꾸고 있죠?

5. 원우회장으로서 함께 학위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전략이나 애자일 조직, 데이터 자산,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등 조직의 기능이나 구조, 기술의 혁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혁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우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잘 맺어진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원우분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원우 분들이 모두 서로 공유하고 돕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교 다니는 것도 더 즐겁지 않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함께 머리 모아 해결도 해 가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장동근 원우, 권형은 원우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경영컨설팅학과 총동문회 밴드 URL을 첨부하오니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영컨설팅학과 총동문회 밴드 URL: <https://band.us/n/aca586dc3az1R>**

※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근황이 있는 원우께서는 뉴스레터 발송 메일로 연락주세요.

AI 솔루션 도입, 최적의 속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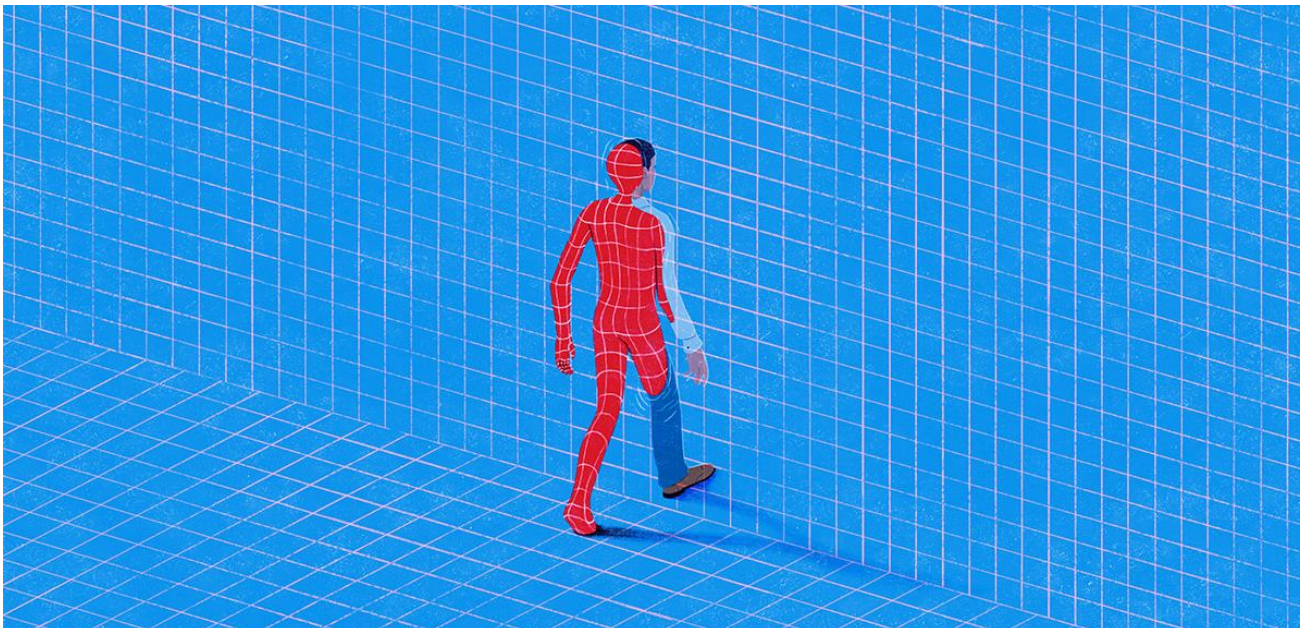
Article at a Glance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터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불필요한 작업들은 줄어들고 조직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아직 쉬이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조직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들이 수십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보면, AI 솔루션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AI 도입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리더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인간이 설 자리를 없애거나 업무 현장의 역학을 무너뜨릴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활용에 필요한 역량을 새로 학습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주저합니다.

그렇다고 확신 없는 우려 속에 억지로 신기술을 도입해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AI 기술 도입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조직이 혁신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에는 막대한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그 활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3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AI 솔루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직 내에서 AI 솔루션의 충격을 직접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쉽게 파악하고, 해당 솔루션 도입에 대한 이들의 역량과 마음가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들은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3단계 접근 방식으로 '1단계: AI 솔루션의 영향 평가-2단계: 도입 장벽 파악-3단계: 적절한 속도 파악'을 제시하는데요, 아티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대학원 11월 일정

날짜	내용	비고
09월 01일(목) ~ 11월 10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09월 01일(목) ~ 11월 24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 접수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11월 05일(토)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 특별전형 면접시험	-
11월 10일(목) ~ 12월 02일(금)	신입생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	-
11월 18일(금)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대학원 홈페이지



[End of Document]